

2004년 5월 16일 시행 행정자치부 9급 국어 기출문제 해설

1. '5·16 국가직 국어'에 대한 강평

이번 행정자치부 9급 공채 국어 문제는 국립 국어 연구원에서 160가지 유형, 397개 문항으로 제시한 바 있는 '공무원 시험 대비 제안서'의 방향에 준거하여 출제되었다. 이 문건에서 공무원 국어 시험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공무원 국어 시험의 문항 내용은 공무원 국어 시험의 기본 개념과 부합해야 한다.

② 문항의 내용은 입사 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문항의 내용은 단순 기억이 아닌 고등정신(분석력, 종합, 비판)을 측정해야 한다.

④ 문항의 내용은 고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아야 한다.

⑤ 문항의 내용은 국어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먼저 국어지식 영역(8문항)의 문제는 ②와 ④를 근거로, 언어사용 영역(8문항)의 경우는 ③을 중심으로 ①과 ②를 감안하여 출제됨으로써 두 영역이 무려 16문항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문학 영역의 지문은 4문항이었지만, 2문항(시백, 원고지)은 반응의 적절성과 세부정보파악을 각각 물음으로써 지문의 독해 능력을 물었고, 나머지 두 문항(승무, 삼대)만이 순수한 문학 문제였다. 문학 영역은 ①을 근거로 국어 시험의 기본 개념과 부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자·한문 영역은 ⑤를 근거로 실용한자어휘와 한자성어 위주의 2문항이 출제되었다.

국어지식 영역은 기본 원리(문법적 지식 및 규범적 지식)를 정확하게 학습한 후 다른 어휘에 적용시키는 응용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응용 능력이 변별력 문항이었다(2번 문제). 언어사용 영역은 독해와 작문의 기본 원리를 체계있게 학습하고 지문에 대한 적응 훈련을 통하여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필자의 의도(8번), 관점의 추리(12번), 정보의 개괄적 이해(18번) 등의 문제가 변별력이 있었다.

금번 국가직 국어 과목을 분석한 결과 우리 수험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단원별 분석보다도 유형적 분석이 더욱 더 중요하다

다는 점.

둘째, 이러한 출제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초 이론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 지문에 대한 고도의 분석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 다시 말하면 단순 암기식의 지식형 문제는 지양되고 있으며 변별력 또한 없다는 점.

넷째,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여 현재 자신의 국어 능력을 수시로 진단해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영역	하위 단원	출제 유형	문항
국어지식 영역	문법적 지식	① 언어의 자의성 ② 높임 표현('시'의 쓰임)	8
	규범적 지식	①~② 한글 맞춤법 제57항(부치다, 하노라고) ③ 표준 발음법 제20항(공권력) ④ 한글 맞춤법 제30항(대가)	
	어휘 능력	① 옥도 갈아야 빛이 난다. ② 단위어(축)	
언어사용 영역	언어 영역 (화법, 독서, 작문)	① 필자의 의도 추리 ② 반응의 적절성 비판(이규보 '시백') ③ 관점의 추리 ④ 세부 정보 파악(원고지) ⑤ 서술상의 특징(간접 흡연)	8
	실용문 독해	① 문종의 성격(비평적 논설문) ② 문단의 요약(독서와 인생) ③ 정보의 개괄적 이해(인구론)	
문학 영역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① 시의 주제 파악(승무) ② 인물의 갈등(삼대)	2
	국문학사		
한자·한문	한자 어휘	① 한자성어(백년하청) ② 한자어휘(만난-萬難)	2
계			20

★ 이 문제는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해 복원된 것이므로 기출문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다음 설명을 포괄할 수 있는 언어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은?

- '멍멍'은 의성어로 의미와 음성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개짖는 소리 '멍멍'은 일본인들에게 '왕왕'으로 인식된다.
- '사오정'(사십오 세 정년)이란 말은 개인이 만든 말로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쓰이고 있다.
- 언어는 음성과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고, 그것을 사용하는 언어사회에서 사회적 약속으로 정하여 쓰면 그만이다.

- ① 언어의 체계성 ② 언어의 창조성
- ③ 언어의 자의성 ④ 언어의 개인성

• 출제 유형 : 언어의 특성(문법적 지식). 지평 국어 P.452

• 해 설 : 윗글은 '예시-주지'의 귀납적 전개를 보이고 있다. 의성어, 의태어의 경우 언어 기호와 지시대상 간에 어느 정도 밀접함을 보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의 단어를 비교해 보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는 점, ‘사오정’은 「서유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이지만, ‘사십오 세 정년’의 의미로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은 실제 의미와 언어 형식(음성)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잘 말해 준다.

<정 답> ③

2. 제시된 낱말을 활용하여 만든 문장 가운데 잘못된 것은?

- ① 조리다 : 이제 생선만 조리면 되겠구나.
 졸이다 : 마음을 졸이며 하루를 보냈다.
- ② 마치다 : 목이 메어 말을 마치지 못했다.
 맞히다 : 정답을 맞히면 상품을 드립니다.
- ③ 바치다 : 그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했다.
 받치다 : 그녀는 우산을 받치고 길을 나섰다.
- ④ 부치다 : 그는 옆 사람에게 농담을 부쳐 보았다.
 붙이다 : 오늘 회의 내용을 극비에 붙여야 합니다.

• 출제 유형 : 한글 맞춤법 57항(규범적 지식). 지평국어 P.581

• 해 설 : ‘붙이다’는 ‘붙게 하다’의 뜻으로 ‘붙다’에서 파생된 동사이다. ‘붙다’의 의미 연관성에서 파악하면 큰 무리가 없다. ④에서 ‘농담을 붙이다’와 ‘극비에 부치다’가 바른 표기이다. ‘농담을 붙이다’는 ‘말을 걸다’의 뜻으로 ‘붙이다’가 바르며, ‘극비에 부치다’는 ‘일을 어떤 상태로 돌리다’의 뜻으로 ‘불문(不問)에 부치다’, ‘극비에 부치다’ 등으로 쓰인다.

<정 답> ④

3.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여우 [불려우] ② 공권력 [공꺠력]
- ③ 늑막염 [늑망념] ④ 등용문 [등용문]

• 출제 유형 : 표준 발음법 제20항(규범적 지식). 지평국어 P.614

• 해 설 : ② ‘공권력’의 경우는 표준발음법 제20항(‘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된다.)의 예외 사항이다. 곧, ‘공권력[공꺠력]’으로 발음된다. ‘ㄴ’이 영향을 ‘ㄹ’에 주어 ‘ㄴ’으로 변하는 비음화 현상이다.

<정 답> ②

4. 다음 중 ‘사이 시옷’의 사용이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 ① 조갯살, 베갯잇 ② 전셋집, 나뭇잎
- ③ 제삿날, 툇마루 ④ 횡수(回數), 댓가(代價)

• 출제 유형 : 한글 맞춤법 제30항(규범적 지식). 지평국어 P.572

• 해 설 : 한자어 합성어 경우 사이시옷이 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단, ‘곶간, 섯방, 섯자, 섯간, 섯간, 횡수’ 등의 6개만 예외로 하고 나머지 모든 한자어 합성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가(代價)’로 표기해야 한다.

<정 답> ④

5. 밑줄 친 말이 바르게 쓰인 것은?

- ① 그 사람 말 참 잘하는데!
- ②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 ③ 하노라고 한 것이 그 모양이더라.
- ④ 그가 나를 믿음으로 나도 그를 믿는다.

• 출제 유형 : 한글 맞춤법(규범적 지식). 지평국어 P.582

• 해 설 : ① 잘하는데 → 잘하던데 ② 가던지 오던지 → 가든지 오든지 ④ 믿음으로 → 믿으므로(~때문에 : 까 닭이나 근거를 나타낼 때) 등으로 고쳐야 한다. ③은 ‘하노라고’(자기 나름대로 한다고)가 바른 표기이다.

<정 답> ③

6. 문법에 맞게 쓴 문장은?

- ① 영수야, 선생님이 빨리 오래.
- ② 한수야, 선생님께서 빨리 오라셔.
- ③ 철수야, 선생님께서 빨리 오래더라.
- ④ 명수야, 선생님께서 빨리 오시라던데.

• 출제 유형 : 높임 표현(문법적 지식, 언어 예절). 지평국어 P.657

• 해 설 : ① 영수야, 선생님께서 빨리 오라셔. (○)
 ③ 철수야, 선생님께서 빨리 오라시더라. (○)
 ④ 명수야, 선생님께서 빨리 오라시던데. (○)

<정 답> ②

7. 다음 속담의 뜻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 ① ‘옥도 갈아야 빛이 난다.’ :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라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 전혀 쓸모가 없는 물건이 되고 만다는 말
- ② ‘가까운 무당보다 먼데 무당이 영하다.’ : 흔히 사람은 자신이 잘 알고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잘 모르고 멀리 있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
- ③ ‘좋은 농사꾼에게 나쁜 땅이 없다.’ :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은 나쁜 땅을 만나도 탓함이 없이 정성껏 가꾸어 소출을 많이 낸다는 뜻으로, 모든 일은 재가 하기에 달렸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배고픈 놈더러 요기시키란다.’ : 자기 배도 채우지 못하고 굶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는 뜻으로,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출제 유형 : 속담의 이해(실용 어휘 능력). 지평국어 P.714

• 해 설 : ① 자질이 뛰어나도 그것을 갈고 닦아야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 답> ①

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떤 선진국민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조깅을 한다. 그들은 심근 경색으로 죽을 지경이 되어 털썩 주저앉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달음박질을 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맥박 단련기>(59.95달러)라는 것이 있다. 이 기계를 손목에 차

고 뽐박질을 하면, 심장 혈관계에 이상이 올 경우 경보음이 울린다. 저개발국의 실정을 생각하면 이것은 큰 진보가 아닐 수 없다. 저개발국 사람들은 뽐박질을 하다가 숨이 가쁘면 그냥 멈추어 버린다. 숨이 가쁘면 무리하게 달릴 필요가 없다는 아주 원시적인 이유에서다. 놀라운 일은, 조강을 전혀 하지 않음에도 그들의 혈액 속에는 콜레스테롤이 조금밖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맥박 단련기>를 차고 조강을 하면 안심하고 달릴 수 있다. 게다가 <나이키 모니터>라는 벨트까지 가슴과 허리에 두르면 더욱 안심할 수 있다. 두 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도플러 효과를 내는 초음파를 통해 주파한 거리와 속도를 알아내어 전자 음성으로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이키 모니터>의 가격은 3백 달러이다.

- ① 이 글은 상품 광고의 일부이다.
- ② 저자는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 ③ 저자는 선진국 국민들의 행태를 은근히 풍자하고 있다.
- ④ 이 글은 저개발국 사람들의 행태를 비웃고 있다.

· **출제 유형** : 필자의 의도 추리(추리 상상적 사고). 변별력 테마 100제 P.178

· **해설** : 의도의 추리는 글에 등장하는 화자의 태도나 글쓰이의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글을 쓴 의도는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글 속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글은 선진국 국민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조강을 할 경우, ‘맥박 단련기’와 ‘나이키 모니터’를 사용하여 안심하고 달릴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계들의 가격이 각각 59.95 달러와 3백 달러로 저개발국 국민들이 엄두도 못 낸다는 점, 또한 저개발국 국민들은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숨이 가쁘면 그냥 멈추어 무리하게 달리지 않는다는 점, 더구나 조강을 전혀 하지 않음에도 그들의 혈액속에는 콜레스테롤이 조금밖에 들어 있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③이 정답이다. 곧 필자는 저개발국 국민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는 콜레스테롤 문제를 과학으로 해결한다는 선진국 국민들의 행태를 은근히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③

9.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사용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 ①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더니, 잘못된 주제에 큰 소리를 치니?
- ②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데, 너 혼자 외쳐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 ③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잖아,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게 뭐가 있겠니?
- ④ 오비이락(鳥飛梨落)이라고, 네가 거기 있었으니 의심을 받는 것 아니겠니?

· **출제 유형** : 한자 성어의 이해. 지평 국어 P.846

· **해설** : ③ 황하의 물이 맑기를 무작정 기다린다는 고사에서 나온 것으로 아무리 바라고 기다려도 실패가망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정답> ③

10. 다음 글의 유형을 알맞게 지적한 것은?

소신에 찬 철학도 없이, 깊이 있는 검토도 없이 그저 즉흥적으로 주변의 특정한 개인으로부터 들은 편향된 이야기만을 믿고 그냥 어떤 정책을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밀어붙여 추진할 때, 한 나라의 교육은 희생당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 갖고 있었던 편협한 경험과 생각에 기초하여 무엇인가를 서둘러 개혁한다고 한다면, 또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좋지 않은 감정에 따라 보복적인 개혁을 시도한다면 교육은 그러한 특정 개인의 정치적 야심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정책이 특정 지역, 특정 배경, 특정 기관 출신의, 정치적으로 힘있는 사람들만의 커다란 목소리에 좌우될 때, 그것은 교육이 정치적 놀음에 희생당하는 또 다른 유형이 된다.

- ① 분석적 설명문 ② 비평적 서사문
- ③ 논설조의 수필문 ④ 비평조의 논설문

· **출제 유형** : 문종의 이해. 지평 국어 P.384

· **해설** : 이글은 교육개혁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의 태도와 그 문제점을 주제로 한 논설문이다. 이러한 결정권자가 소신에 찬 철학적 안목이 결여된 채 자신의 정치적 힘과 야심만을 앞세운다면, 교육이 정치적 놀음에 희생당하고 말 것이라는 필자의 우려와 비판을 고려할 때 ④가 정답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교육 정책의 파행을 정책 결정권자의 자질과 결정과정의 문제점에서 진단한 비평적 논설문이다.

<정답> ④

11. 다음의 시를 읽고 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침에 귀뚜라미처럼 읊조리고
저녁엔 올빼미인 양 노래하네.
어찌할 수 없는 시마(詩魔)란 놈
아침저녁으로 몰래 따라 다니며
한번 붙으면 잠시도 놓아 주지 않아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네.
날이면 날마다 심간(心肝)을 깎아 내
몇 편의 시를 쥐어 짜내니
기름기와 진액은 다 빠지고
살도 또한 남아 있지 않다오.
뼈만 남아 괴롭게 읊조리니
이 모양 참으로 우습건만
깜짝 놀랄 만한 시를 지어서
천 년 뒤에 남길 것도 없다네.
손바닥 부비며 혼자 크게 웃다가
웃음 그치고는 다시 읊조려 본다.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렸으니
이 병은 의원도 고치기 어려워라. 이규보, ‘시癖(詩癖)’

- ① 화자는 자신을 다소 희화화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

② 화자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③ 화자는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창조의 보람과 만족감을 맛보고 있어.

④ ‘병’은 ‘신체적 질병’이라기보다는 ‘고약한 습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거야.

· **출제 유형** : 반응의 적절성(내적 준거에 의한 적절성 비판). 지평 국어 P.313

· **해 설** : 이 문제는 독자가 시를 읽고, 시적 화자의 의도와 대상에 대한 태도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유형이다.

이 작품은 시마(詩魔)가 아침 저녁으로 따라다녀 시를 짓지 않고는 못 배기는 시를 짓는 습관에 대해 쓴 글이다. 첫째 연에서 시적 화자 자신을 귀뚜라미, 올빼미에 견주어 희화적으로 묘사한 점, 셋째 연에서 ‘날이면 날마다 심간을 깎아 내’ 시를 쓰는 것을 볼 때, 화자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 넷째 연의 ‘깜작 놀랄 만한 시를 지어서 천 년 뒤에 남길 것도 없다네’라는 구절은 자신의 시가 보잘 것 없다는 겸손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연의 ‘웃음’은 ‘시마’에 이끌려 결국 양상해진 자신의 몰골에 대한 웃음으로 이해된다. 이 부분을 ③처럼 해석하면 잘못 이해한 것이다. 마지막 연에서 ‘시마’에 이끌려 시를 짓는 것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 말한 것은, 화자의 시작 행위가 생사를 초월한 즐 거운 행위임을 밝힌 것이다.

<정 답> ③

<작품의 이해>

1. 원시

年已涉縱心(연이섭종심)
位亦登台司(위역등태사)
始可放雕篆(시가방조전)
胡爲不能辭(호위불능사)
朝吟類蜻蛉(조음류청령)
暮嘯如鳶鷂(모소여연치)
無奈有魔者(무내유마자)
夙夜潛相隨(숙야잠상수)
一着不暫捨(일착불잠사)
使我至於斯(사아지어사)
日日剝心肝(일일박삼간)
汗出幾篇詩(즙출기편시)
滋膏與脂夜(자고여지야)
不復留膚肌(불부유부기)
骨立苦吟哦(골립고음아)
此狀良可嗤(차상량가치)
亦無驚人語(역무경언어)
足爲千載貽(족위천재이)
撫掌自大笑(무장자대소)
笑罷復吟之(소파부음지)
生死必由是(생사필유시)
此病醫難醫(차병의난의)

2. 현대어 풀이(본문 누락분)

나이 이미 칠십이 넘었고
지위 또한 정승에 올랐네.
이제는 시 짓는 일 벗을 만
하건만
어찌해서 그만두지 못하는가.

3. 핵심정리

- 갈래 : 한시(漢詩)
- 작가 : 이규보(李奎報, 1168~1241)
- 연대 : 고려시대
- 제재 : 시를 짓지 않고는 못 배기는 병
- 주제 : 시 짓기를 좋아하는 마음
- 출전 :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12. 다음에서 두 사람 간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바르게 지적한 사람은?

선희 : 어떤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이 현재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지 않아. 내 생각에 그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의 여부는 그렇게 화려한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예컨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가진 것 모두를 잃게 되었을 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며 살다가 어느날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 봐. 그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밝게 웃으면서 “참 보기 좋습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잘 살아 온 거고, 만일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잘 됐군.”하고 말한다면 잘 못 산 거지.

진희 : 나는 네 말에 공감할 수 없어. 삶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 있단 말이니?

선희 : 내 이야기의 초점은 삶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야. 잘 살아왔는지 혹은 못 살아왔는지에 대한 판단은 권력이나 명예를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거지.

진희 : 어쨌든 네 말은 한 사람에게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해 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가 달려 있다는 거잖아.

선희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니까. 너는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에야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말에도 공감하지 못하니?

진희 : 그건……. 여하튼 네 말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좌우된다는 거잖아? 나는 자신이 잘 살아왔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은 오직 본인 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

① 철수 : 두 사람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② 순자 : 한 사람이 상대방 이야기의 한 부분만을 문제 삼기 때문이다.

③ 숙희 : 두 사람이 용어의 개념들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④ 영희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 **출제 유형 :** 관점의 추리, 실용문 강독. P.83

· **해 설 :** 두 사람의 대화를 읽고 화제에 대한 인물들의 관점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이 대화의 화제는 ‘삶에 대한 평가’인데, 선희는 이에 대해 권력이나 명예를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진희는 여기에 대해 남이 아닌 자신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① 화제에 대한 진희의 가치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용어의 개념 자체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서로 인신 공격을 하고 있지 않다. ② 선희는 ‘삶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나름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하여, 진희는 화제에 대하여 평가 주체가 누구냐는 지엽적인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럼 점을 감안할 때 ②가 정답이다.

<정 답> ②

13. 작가가 다음 <보기>의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수가 소파 앞에 굴러 있는 신문지를 집어 본다.)

교수 : (신문을 혼자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의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책이 착취사(搾取社)에서 다시 나왔어.

(교수가 소파 앞에 굴러 있는 신문지를 집어 본다.)

교수 : (신문을 혼자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의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책이 착취사(搾取社)

에서 다시 나왔어.

(처가 신문지를 한 장 다시 접는다. 낱자를 보더니)

처 : 당신두 참, 그건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것은 여기 있는데.

교수 : (보던 신문 낱자를 읽고) 오라, 삼 년 전 신문을 읽고 있었군. 오늘 신문 이리 주시오. (오늘 신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에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책이 악마사(惡魔社)에서 다시 나왔어.

처 : 참,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이근삼,
‘원고지’(1965)

① 반복되는 일상

② 비정상적인 사회

③ 의사 소통의 장애

④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 **출제 유형 :** 세부 정보의 파악(사실적 사고 능력), 변별력 테마 100제 P.45

· **해 설 :** 작품을 읽고, 작품에 나타난 현대 사회의 특성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① 3년 전과 오늘의 신문 기사가 거의 유사하다는 점 ② 두 살 난 아기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든가 지프차에 들이받힌 동대문 이 완전히 무너진 점 ③ 교수의 대사에서 똑같은 일상의 반복적 삶을 되풀이해서 혼자 읽는다는 점은 현실과의 의사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처의 두번째 대사(세상이 많이 변했다)에서 아내 역시 현실 뿐만 아니라, 남편인 교수와도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교수 일가족의 모습을 통해 이 작품은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의 의미 없는 삶을 제시해 준다.

<정 답> ④

14. 다음 시의 주제를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낸 연은?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아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도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① 3연 ② 5연
③ 7연 ④ 9연

• **출제 유형** : 시의 주제 파악. 지평 국어 P.61 2번 문제 유사

• **해설** : 이 시의 주제는 인간 번뇌의 종교적 승화이다. 이 시의 주제 파악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는 ‘별빛’인데, 6연의 ‘별빛’은 염원을 의미하며 7연의 ‘별빛’은 해탈의 의미이다. 곧 7연에서 ‘번뇌는 별빛이라’는 구절은 세상일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으로 승화한다는 뜻을 함축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답> ③

15. 다음 글에서 각 문단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한 것은?

문화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지식(知識)의 소산(所産)이다.

(가) 이상(理想)이나 문화나 다 같이 사람이 추구(追求)하는 대상(對象)이 되는 것이요, 또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니, 그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이상은 현실 이전의 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추구하여 현실화시키는 데에는 지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식의 공급원으로는 다시 서적이란 것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다. 문화인이면 문화인일수록 서적 이용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서적의 의존도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

(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적 중에는 입수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는 불평(不平)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류(人類)가 지금까지 이루어 낸 서적의 양은 실로 막대하다. 옛날에도 서적이 많다는 표현을 ‘오거서(五車書)’와 ‘한우충동(汗牛充棟)’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오거서’나 ‘한우충동’ 따위의 표현으로는 이야기도 안 될 만큼 서적이 많다.

(라) 우리 나라 사람은 일반적으로 책에 관심이 적은 것 같다. 학교에 다닐 때에는 시험이란 위력(威力) 때문이랄까, 울며 겨자먹기로 교과서를 파고들지만, 일단 졸업이란 영예(榮譽)의 관문을 돌파한 다음에는 대개 책과는 인연(因緣)이 멀어지는 것 같다.

- ① 가 : 문화와 이상은 여러 모로 닮은 점이 많다.
② 나 : 문화인일수록 이상이 점점 더 높아진다.

③ 다 : 옛날에도 서적의 양은 매우 방대했다.

④ 라 :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에 대한 관심이 적다.

• **출제 유형** : 문단의 요약(사실적 사고 능력). 지평 국어 P.342

• **해설** :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논지 전개 양상을 준거로 문단의 요지를 파악해야 한다.

(가) 이상과 문화의 차이(전제-주지)

(나) 서적의 필요성, 독서의 의의(주지-상술)

(다) 서적의 방대함(전제-주지) (라) 우리나라 독서 현실(주지-상술) <정답> ④

16. 다음의 <보기>에서 부자간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어쨌든 세상에 좀 할 일이 많습니까. 교육 사업, 도서관 사업, 그 외 지금 조선어 사전 편찬하는 데…….”
(아들) 상훈이는 조심도 하려니와 기를 녹이어서 차근차근히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할 말은 다 하겠다는 듯이 말을 이어 나가려니까 또 (아버지의) 버락이 내린다.

“듣기 싫다! 누가 네게 그 따위 설교를 듣자든? 어서 가거라.”

“하야간에 말씀입니다. 지난 일은 어쨌든, 지금 이 판에 별안간 치산이란 당한 일입니다. 치산만 한대도 모르겠습니까마는 서원을 짓고 유생들을 몰아다 놓으시렵니까? 돈도 돈이거니와 지금 시대에 당한 일입니까?”

상훈이는 아까보다 좀 어기(語氣)를 높여서 반대를 하였다.

“잔소리 마라! 그놈 나가라니까 점점 더하고 켜고나. 내가 무얼하든 네가 총찰(總察)이란 말이나. 내가 죽으면 동전 한 닢이라도 너를 남겨 줄 테니 걱정이란 말이나. (중략) 너는 이제는 남 된 셈만 쳐라. 내가 죽으면 네가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

염상섭, ‘삼대’

① 아버지는 조상을 섬기는 일에 가치를 두고 있으나, 아들은 그렇지 않다.

② 아버지는 돈(물질)을 중시하고 있으나, 아들은 돈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

③ 아버지는 예의 바르고 또박도박한 언행을 중시하나, 아들의 언행은 그렇지 못하다.

④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애정을 보이고 있으나, 아들은 그 애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출제 유형** : 인물간의 갈등 원인 파악. 지평국어 P.105

• **해설** : 인용 지문은 교육 사업에 관심을 둔 상훈과, 치산(산소 매만짐), 서원 건립 등의 봉건적 관습에 관심을 둔 조의관과의 상충된 가치관에서 갈등이 빚어진 대목이다. 주된 매개체는 ‘돈’이다. <정답>

①

17.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의 한자가 바르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학문에 진리 탐구 이외의 다른 목적이 선불리 앞장을 설 때, 그 학문은 자유를 잃고 왜곡(歪曲)될 염려조차 있다. 학문을 악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진리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그 학문은 한때의 신기루와도 같아, 우선은 찬연함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과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부터가 문제다.

진리의 탐구가 학문의 유일한 목적일 때, 그리고 그 길로 매진할 때, 그 무엇에도 속박됨이 없는 숭고한 학적인 정신이 만난을 극복하는 기백을 길러 줄 것이요, 또 그것대로 우리의 인격 완성의 길로 통하게도 되는 것이다.

- ① 매진 : 邁進 ② 속박 : 束縛
- ③ 만난 : 萬亂 ④ 기백 : 氣魄

• **출제 유형** : 한자어의 이해(어휘 능력). 지평국어 P.392

• **해설** : ③ 만 : 난(萬難) : 온갖 고난, 여러 가지 장애
<정답>
 ③

18. 다음 예시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진술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 엄청난 기아 사태가 오리라고 암울한 미래를 예측한 말더스에게 변수는 전쟁이었지만 실제의 역사는 그가 예상한 전쟁 말고도 그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두 측면으로 기아폭발은 방지되었다. 그 한 측면은 식량증산기술이 관개시설, 영농기구로부터 농약·비료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고 이제는 생명공학으로 무제한적인 식량증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한 측면은 생활품속의 변화와 국가정책으로 출산율이 크게 떨어진 점인데, 1965년 이후 인구증가율은 1.4퍼센트대로 떨어져 오늘날 유럽은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이고 후진국은 증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말더스는 당시의 상황과 수준에서 연역해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미래에 일어날 갖가지 미지의 변화 함수를 예측하지도, 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중략) 그러나 여기서 귀중한 것은 비관론자의 우려와 경고가 있었기에 그에 대응하는 대안 탐구와 정책 추구가 수행된 것이고, 그 결과가 비관적 미래 예측의 울타리를 뛰어넘게 한 것이다. 도박에서는 늘 낙관론자가 이기지만 그것이 이길 수 있도록 현상의 타개를 밀어주는 것은 늘 비관적 전망이다.

- ① 세계인구는 1965년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군.
- ② 알고 보니 선진국에 비해서 후진국의 인구증가율이 더 낮은 편이네.
- ③ 현재의 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는 변수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어.
- ④ 비관적 예측이 적중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예측이 상황의 변화에 적극적인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

• **출제 유형** : 정보의 개괄적 이해(사실적 사고). 실용문 강독 P.40

• **해설** : 정보의 개괄적 확인이란, 주어진 말이나 글

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재조직, 종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인용문은 맬서스의 ‘인구론’을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비관론자의 우려와 경고가 그에 대응하는 대안 탐구와 정책 추구의 수행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비관적 미래 예측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윗글은 ‘전제-상술-주지’의 논지 전개로 보이고 있으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러나 여기서 귀중한 것은~’ 이후에 나타난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④는 이를 잘 이해한 독자의 반응이다. ①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준 것인지 인구가 준 것이 아니라는 점, ②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유럽과 후진국을 본문에서 비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정답>

④

1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은 혹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배 연기가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지 모르시지는 않습니까?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담배를 피울 때, 흡연자가 흡입하는 양보다 두 배나 많은 양의 타르와 니코틴이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 타르와 니코틴이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 타르와 니코틴이 공중을 떠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마시게 됩니다.

의학적 연구에 의하면, 만일 여러분이 흡연자와 같은 장소에서 생활할 경우 여러분의 심장과 폐는 하루에 담배를 열 한 개비 피우는 사람과 동일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별로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60세가 되면 대략 7,187갑이나 되는 담배를 무의식적으로 피운 셈이 됩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담배 연기는 여러분의 눈을 충혈시키고, 기침이 나오게 하며, 숨을 헐떡거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고혈압이나 심장병 환자로 만들 수도 있으며, 폐암에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함께 있는 흡연자들에게 저당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 ① 흡연자를 독자로 삼고 있다.
- ②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③ 독자의 정서를 자극하여 감동을 주고 있다.
- ④ 조사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출제 유형** : 서술상의 특징(사실적 사고 능력). 변별력 테마 100제 P.172

• **해설** : 윗글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간접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한 설명적 논설문이다. 조사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여 간접 흡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답>

④

20. 우리말 수량 단위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축 : 오징어를 열 마리씩 세는 단위
- ② 궤 : 북어를 스무 마리씩 세는 단위
- ③ 쌈 : 바늘을 스물 네 개씩 세는 단위
- ④ 접 : 과일 따위를 백 개씩 세는 단위

· 출제 유형 : 단위어의 이해. 지평국어 P.714

· 해 설 : ‘한 축’은 마른 오징어 20마리를 말한다.
이외에도 20마리에 대한 단위어에는 ‘궤(북어 20마리)’, ‘두름(한 줄에 열 마리씩 2줄, 조기, 청어)’ 등이 있다.

<정 답> ①